



코로나19로 지친 학생을 위한 메시지
마음 다독임

한국글로벌중학교 Wee클래스

안녕하세요. 위클래스입니다^^

친구들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
온라인 개학이네요..

친구들도 너무 궁금하고
날씨도 따뜻해 지고
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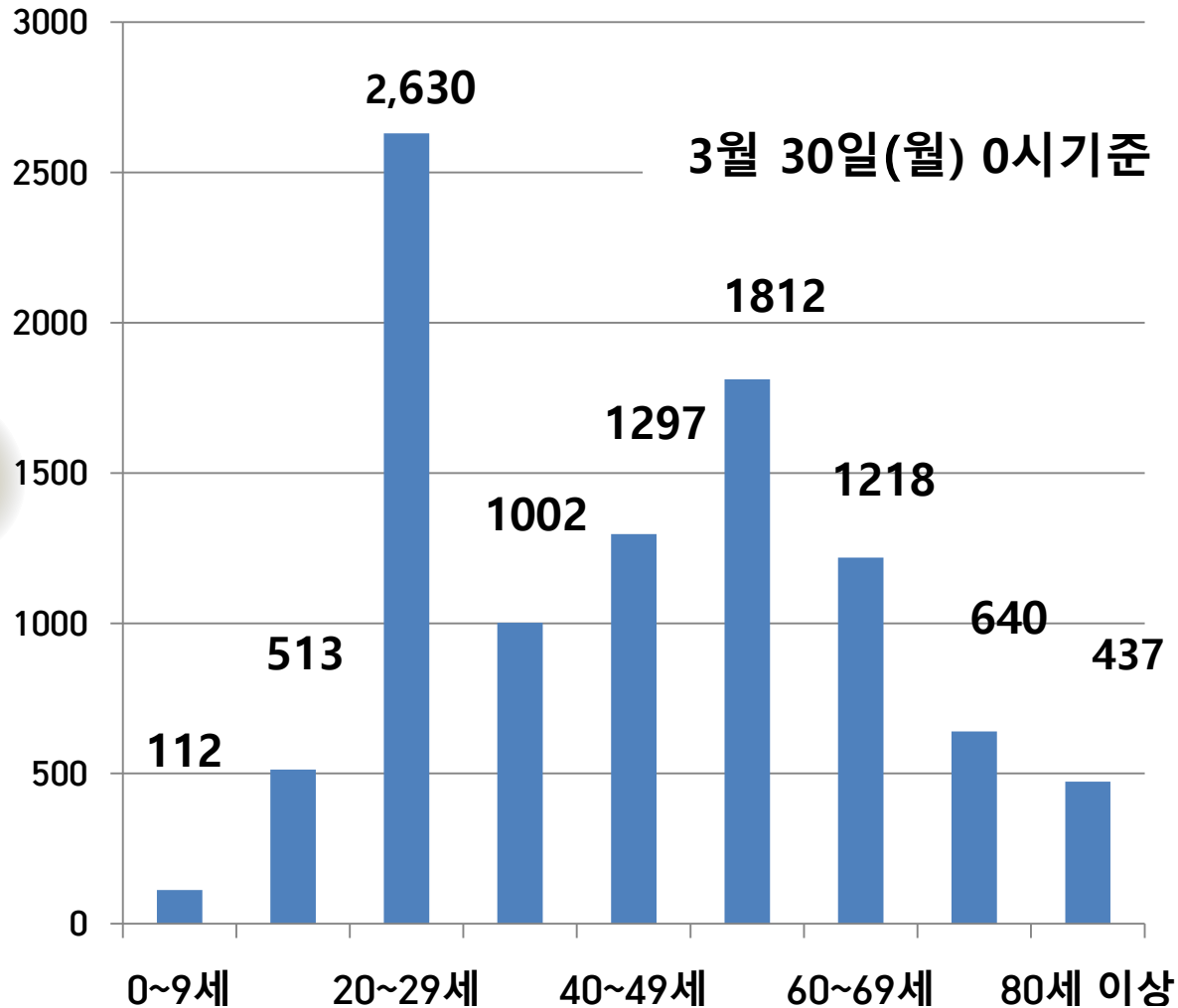
밖에는 벚꽃도 많이 피었는데 ..
답답해....



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는데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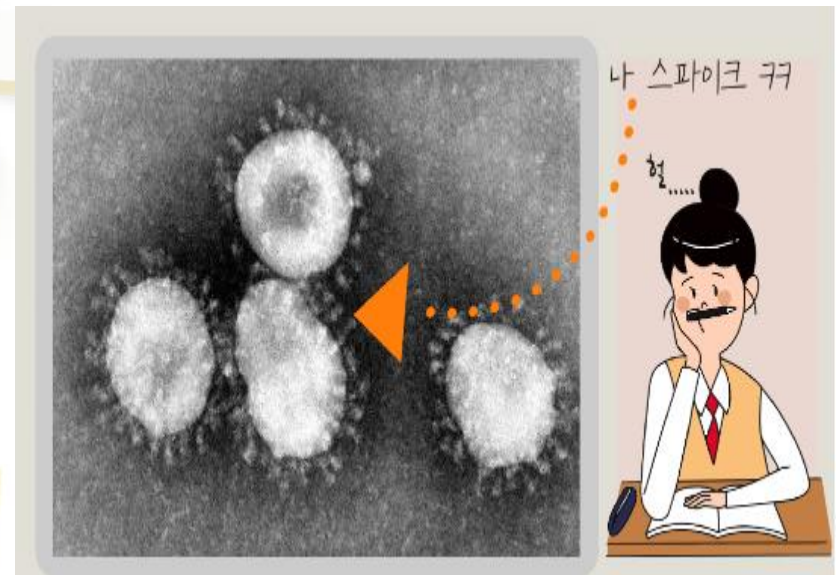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
“젊은 사람들은 경증이라도 높은
전파력을 보인다.”라고 하며
코로나는
나이와 상관없이 걸릴 수 있다
고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


코로나19 연령별 발생 현황

나는 걸려도 괜찮아?

-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 이들도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 하나봐요.
- 하지만 내가 감염되면 나 하나 뿐 아니라 그 여파는 주위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.
- 그러니 좀 답답해도 좀 더 참아야 할 수 밖에 없긴 한데...
- 하루 종일 집에 있자니 괜히 짜증만 나고



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요?



가족과 영화보기 ☆

-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본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- 영화를 보고나서 서로의 감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영화의 감동이 더 오래 남겠지요?



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요?



PC방 대신 보드게임

- 요즘 PC방을 통한 감염으로 시끌시끌한데 PC방에 가기보다 보드게임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
-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아요.



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요?



책읽기 그리고 요리하기 ✨

- 묵혀 두었던 책을 꺼내 여유롭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- 그리고 엄마에게만 조르지 말고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서 나누어 먹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



지금은 서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.

- 코로나 19로 인해 평범했던 **일상의 소중함**을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.
-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한 시절이지만 그럴 수록 **서로를 다독이며 힘이** 되어주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.
-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본 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외쳐도 내가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지요.
- 조금 불편하고, 귀찮아도. 조금 답답하고 짜증나도.
- 오늘 나에게 **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보아요.**
- 어서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

**한사람의 작은 배려와 인내가
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.**

한국글로벌중학교 Wee클래스

